

제417회 국회  
(임시회)

#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8월 8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1
-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 8
-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9

(16시34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사의 정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 실시에 필요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되었기에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6시35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문회는 8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일문 일답 신문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 등 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본질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지금 사실 마약수사 외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수사 보도에 대한 외압이다, 그것 좀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마약수사 외압이다 그러면, 마약을 수사하는데 외압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게 문제가 뭐냐 하고 따져 보면 마약수사를 보도자료, 보도하기 위한 내용에서 관세청에서 기관 협조 차원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니까 좀 빼 달라 이렇게 한 내용인데 이게 마약수사 외압이다 그러면 국민들을 갖다 좀 오도, 호도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명 자체를 ‘마약수사 보도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싶습니다. 마약수사 관련 외압을 제기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상황에 대한 어떤 해명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정면에서 우리가 파헤쳐 보고 또 규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께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약수사 관련 보도 외압 의혹이 아니고요, 세관 관련된 사실들이 빠집니다. 보도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수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밝히자는 취지로 청문회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준비했던 의사진행발언은 우리가 청문회 할 때 증인이 나와서 신문하는 것은 선서를 통해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고 위증 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조지호 경찰청장후보자 청문회에서 조병노 경무관이 위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녹취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대통령실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요. 녹취록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문회에서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의 신문에 답변을 하면서 “‘용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물으신 적 있습니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이 신문에 대해서 ‘전혀 그런 적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단호하게 조병노 경무관이 위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마약수사 외압이냐 아니면 일반 경찰 수사 외압이냐, 이런 청문회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안을 두고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먼저 배준영 위원님께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듣고 그다음에 한병도 위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수해 상황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우리가 오랜 시간 잡아 놓고 안전을 도외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위원님들 이거 보십시오. 20일 날이 저희 을지훈련 기간입니다. 을지훈련 기간이 무슨 기간인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에 업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여기 행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행안위 중인 명단을 보십시오. 전부 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무슨 어디 경찰, 관세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다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국가 위중사태·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이런, 꼭 그날에 골라서 우리가 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날짜를 다시…… 저는 이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백만 가지, 천만 가지 이유를 들더라도 을지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훈련이고, 이런 날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알지를 못하겠고요.

보십시오. 공무원들도…… 이거 보세요. ‘전쟁 나면 어떻게 했을 땐’ 지자체에서도 이를지훈련 미응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우리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데 왜 을지훈련이 벌어지는 이날, 이 많은 책임자들을 불러 갖고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지만, 꼭 해야 된다고 그래도 날짜를 꼭 변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을지훈련을 참여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운영되는 을지훈련과 을지훈련의 필수적인 시간 또 시간대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중인으로 신청돼 있는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지금 국회 일정도 그런 점이 있어서 진행 과정에서 출석 시간들을 조정해 가면서라도 이 청문회를 실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왜 20일 날 해야 됐는지 저는…… 그거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건영 위원 제가 할까요?

○**배준영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한병도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윤건영 간사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이번 청문회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한 경찰관은 징계를 받고 이를 무마하려고 한 저희부는 승승장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련의 비상식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경찰청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행안위가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국회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성실한 자료제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을 비롯한 각 기관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청문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조지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대통령 공무 보좌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당시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도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원모 비서관과 동일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찬수 총경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신속하게 제출을 하고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을 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또 더불어민주당의 행안위원회에서 경찰청 현안 설명과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국민의힘 간사실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경찰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경찰청이 정권에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도, 국민의힘 정권의 경찰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찰청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도 경찰청이 서류제출과 출석을 거부한다면 고발과 관계자 징계 요구 등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조은희 간사님.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께서 여당 간사 얘기를 하셔서 차차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거는 좀 차차 들어보고요.

저는 민주당, 거대 야당이지요, 이런 일방적인 청문회 개최에 상당히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런 정쟁 청문회 개최에 어떠한 합의나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느냐? 야당의 일방적인 폭주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만약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백해룡 경정이 역울한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을 하고 있는지…… 사건의 진위를 밝히려면 증인이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청문회의 명칭과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 요구를 수차례 요구하고 나섰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청문회 날짜도, 증인도, 명칭도 모두 하명식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이번 영등포경찰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1시 41분에 전화가 와서 목요일 오후 3시 청문회 증인 채택 전체회의를 하고 20일에 청문회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날짜를 좀 조정하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단 하루도 날짜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증인 채택을 위한 오늘 전체회의 시간을 한 시간가량 미뤄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역 일정으로 바쁜 세 분의 위원은 미쳐 참석도 못 하시게 됐고 공식 해외 일정까지 취소한 위원도 계십니다. 청문 명칭도…… 누구도 마약수사를 하지 말라고 외압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당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약수사 보도 외압 의혹 청문회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명칭도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증인 명단은 오늘 오후 12시 11분에서야 받았습니다. 수차례 전화해서 명단을 좀 보자고 해서 받은 명단이 무려 36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 명단이었습니다. 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물들을 무더기로 포함시켜 정쟁을 키우겠다는 정치 공세로 비쳐지는, 그런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명단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6명만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전 윤희근 청장은 사건과 관련도 없고 청문회 당일은, 20일은 이미 퇴직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전현직 최고 경찰 수뇌부를 부르겠다, 대한민국 경찰을 다 부르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을지훈련 기간 중에 지방경찰청장 부르고 관세청장 부릅니다. 부르지 말자고 요청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사실 이번 청문회는 범죄자인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의 상투적 진술과 전형적인 수법에 철저히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아무런 증거나 물증도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고 정쟁화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꼬리가 봄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민주당과 야당은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민생만을 위해 전면 대응하면서 이번 청문회에 국민께 명명백백하게 진실만을 밝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정치쑈를 종식시키는 것이야 말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부득이하게 정쟁 청문회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민주당 청문회가 얼마나 허황된 정치쑈인지,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세금 낭비하는 것인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문회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뻥카’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앞으로는 오늘 같은 정쟁만을 위한 증인 채택과 일방적 청문회 강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오직 민생을 위한 논의와 협력, 여야 협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한 분만 더 추가적으로……

○**이상식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신정훈** 그럴까요? 그러면 이상식 위원님께서 손을 높이 드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여당 위원님께서 우리 청문회를 뻬카라고 비유하시는데 뻬카인지 아닌지는 받아 보시면, 콜하시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명칭이나 증인 구성, 날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도자료에 대한 문제지 수사 외압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왜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닙니까?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영장 두 번 반려한 것은 객관적인 팩트잖아요. 제가 그래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최근 연도 들어서는 2% 내외입니다. 2%밖에 안 되는 영장을 2번이나 기각했다,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사건을 또 이첩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첩하라고 했다가 다시 또 반려하고. 그다음에 수사팀을 교체했습니다. 백해룡 경정, 지구대로 좌천이 됐지요. 거기다가 검찰의 담당 지휘부서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3부로 교체가 됐단 말이지요. 이게 그러면 수사 외압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두 번째, 증인에 대해서 윤희근 청장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윤희근 청장이 이 사건 최초 보고를 받고 엄청나게 칭찬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조병노 경무관의 비행을 보고받고 격노하셔 가지고 감봉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그게 불문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날짜에 대해서도 지금 을지훈련 말씀하시는데 저도 기관장을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을지훈련에 경찰청장이나 지휘관들이 아침에 한 번 보고받고 꼭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계속 증거는 인멸될 테고. 그래서 날짜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로 궁금하다, 이 청문회는 꼭 예정된 대로 실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아마 모아서 답변하실 거고, 저는 청문회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윤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박정현 위원** 제가 먼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정훈** 그럴까요?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본 위원이 경찰청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백해룡 경정에게 백 경정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의 기초범죄사실, 수사착수경위 또 당초 예정된 최초 보도자료 배포 일시, 현재까지 경과 등을 포함해서 관세청이 발표한 영등포서 수사사건에 대한 관세청 설명자료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지금 현행법상 정부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백 경정에게 직접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경찰 지휘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만큼 경찰청을 통한 답변 회신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경찰청

을 통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직접 답변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한 백해룡 경정이 위원회 답변 자료 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가 처리를 하는 등 경찰청의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징계기록을, 경찰청에는 감찰기록을 요구했는데 위 자료는 계속 개인정보라고 공개할 수 없다라고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징계기록과 감찰기록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꼭 필요한 자료이니 만큼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께서 각 기관에 강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뭘 감추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문회라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파헤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산이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말이 나온 이후에 태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숨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을지훈련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물론 을지훈련을 가볍게 여기자라는 게 아닙니다. 기관장님들의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제가 여당 간사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을지훈련의 사실상 주무부처인 국방부장관이 을지훈련 기간에 국회에 출석해서 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도 과거에 을지훈련 기간에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를 감안해서 저희가 하자고 한 거고 을지훈련 기간에 만약 기관장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려를 해야지요. 그것 고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증인과 일정 조정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여야 간에 협의를 하는 건데 여당 말 안 들으면 일정 조정 협의 안 된 겁니까? 제가 지난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당 간사님께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의 못 하는 것 인정한다. 앞으로 논의해 나가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 아닙니까? 그게 청문회 논의 과정이지 그러면 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 과정은 아무것도 없이 야당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겁니까? 그것 아닙니다. 증인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일정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논의의 과정 내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여당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야당 마음대로 하라고, 하명 청문회라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당이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거지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됩니까? 의심이 있고 문제가 되는 거라면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져야지요. 그게 청문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문회에서 이러이런 걸 더 하자라고 제안 주신다면 저는 백번, 천번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자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증인을 채택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저희 야당 위원님들 모이셔 가지고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중인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게 성의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예.

이번 청문회는 명백하게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이 작동했고 그 작동된 의혹에 대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거기에 충실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여야 위원님들 간에 청문회 진행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정쟁으로 갈 거냐 또 정쟁을 유발하는 청문회냐 아니면 진실에 접근하는, 규명하는 그런 청문회가 될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발언과 또 의사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주의해 가면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그냥 개인적인 불만이라든가 현장 책임자, 수사 책임자의 그런 감정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국가경찰 운영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전 언론에서 국민적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또 외압의 의혹이 해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번 청문회 계획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있으므로 이것은 불가피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문회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112조와 71조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6인, 찬성 12인 그리고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17시02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8일 현재까지 17개 기관에 대해서 총 474건의 서류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의결되는 즉시 각 기관에 송부해서 8월 16일 오전 10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실 경우 국회법 128조 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7시03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출석요구 명단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에 출석 요구하기로 한 증인은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윤희근 현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등 총 스물여덟 분입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신청해 놓고 이의 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조은희 위원 증인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세요. 증인 신청을 해 놓고 이의 있다고 하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여기 여당이 신청한 증인이 있잖아요. 신청을 하지 말고 이의 제기를 하시든가.

○조은희 위원 아니, 그건 본래 신청하신 분이니까.....

○윤건영 위원 저희 당은 신청한 증인이 있고요. 여당도 신청을 했는데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조은희 위원 그거는 트릭을 쓰시는 거고요.

○윤건영 위원 표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경우가. 표결하려면 증인 신청을 하지 말든가 해야지.

○조은희 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간사님이 트릭을 쓰시는 거고요.

(「트릭이 무슨 트릭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해요, 표결해」 하는 위원 있음)

○윤건영 위원 표결하는데, 경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조은희 위원 간사님의 경우가 말이 안 되지요.

○윤건영 위원 증인 신청을 해 놓고 왜 이의 있다 그러세요? 증인 신청 다 해 놓고……

○조은희 위원 증인 신청하는 것 빼…… 아까는 1도 못 뺀다 그러셨잖아요, 36명에.

(「표결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많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112조 그리고 제71조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6인, 찬성 12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앞서 의결한 대로 8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어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들의 우려 상황에 대해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에 출석 요구한 증인 중에서 차기 경찰청장 등 기관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관장 등 필수 인력의 출석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들과 원만히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 증인 명단

증인(28인)

성명	직위	신문 요지	요구위원
김찬수	전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 현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	마약수사팀에 용산 지시 언급 및 언론브리핑 연기 지시 내용 확인	윤건영 채현일 양부남 이해식 박정현 위성곤 이상식 이광희 정춘생

성명	직위	신문 요지	요구위원
			용혜인 모경종 한병도
조병노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현 수원남부경찰서 서장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에 직접 전화하여 외압을 행사한 내용 확인	윤건영 채현일 양부남 이해식 위성곤 이광희 박정현 정춘생 용혜인 한병도
강상문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형사과장 현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	마약수사 브리핑 중 세관 내용 삭제 외압 확인	윤건영 양부남 이해식 위성곤 이상식 이광희 박정현 정춘생 모경종 한병도
백해룡	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현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마약 사건 수사 당시 외압 확인	윤건영 채현일 양부남 이해식 박정현 위성곤 정춘생 용혜인
윤희근	현 경찰청장	마약 사건 수사 확인 및 조병노 감찰 지시 확인	채현일 이해식 위성곤 이상식 정춘생 용혜인
조지호	현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서울청장 당시 사건 개입 및	채현일

성명	직위	신문 요지	요구위원
		백해룡 경정 인사조치 내용 확인	이해식 박정현 정춘생 용혜인
김광호	전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마약수사 사건이첩 명령 및 수사 개입 확인	채현일 이해식 박정현 위성곤 정춘생 모경종
김봉식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현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영등포서 마약수사를 서울청으로 이첩 지시한 내용 확인	채현일 이해식 박정현 이상식 정춘생 모경종
고광효	현 관세청장	마약수사에 관세청 연루 및 외압 여부 확인	채현일 양부남 이해식 박정현 정춘생 용혜인
김재일	전 인천공항본부세관장	마약 사건에 대한 세관 내용 삭제 요청 확인	채현일 양부남 이해식 박정현 위성곤 이광희 정춘생
정기섭	전 인천공항본부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마약 사건 관련 영등포경찰서 방문 사건 외압 내용 확인	채현일 양부남 박정현 정춘생
최형욱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폭력계장 현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장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을 방문하여 사건이첩 지시를 통보한 내용 확인	채현일 양부남 위성곤 이상식 정춘생

성명	직위	신문 요지	요구위원
			모경종
조창배	현 서울특별시경찰청 형사과장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수사회의에서 마약수사 사건 종결 요구에 대한 내용 확인	조은희
우종수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 사건의 수사브리핑 및 사건이첩 검토의 지휘체계 확인	채현일 박정현 용혜인 모경종
방진원	현 서울영등포경찰서 경감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으로 수사와 외압 내용 확인	조은희
장형태	현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사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으로 수사와 외압 내용 확인	채현일
송호종	직함/소속 없음	영등포경찰서 수사 외압 여부 및 징계 무마 관련	이해식 용혜인
진만선	현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으로 수사와 외압 내용 확인	양부남
우성태	현 서울영등포경찰서 경감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으로 수사와 외압 내용 확인	조은희
장영식	현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계장	마약수사 브리핑 중 세관 내용 삭제 외압 확인	양부남 이상식
박창훈	현 서울특별시경찰청 감찰팀장	마약수사 브리핑 중 세관 내용 삭제 외압 확인	이해식
최동식	현 수원남부경찰서 부속실장	영등포경찰서 수사 외압 여부 및 징계 무마 관련	윤건영 이해식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영등포경찰서 수사 외압 여부 및 징계 무마 관련	이해식 정춘생 용혜인 한병도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	영등포경찰서 수사 외압 여부 및 징계 무마 관련	윤건영 양부남 이상식
남제현	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관련 대통령실 개입 확인	윤건영
이은영	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인사혁신처 정계 불문 처리 경위 등	위성곤
최세윤	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	마약 사건 압수수색 영장 반려 관련	박정현 이해식
윤선화	말레이시아 마약사범 수사팀 통역원	마약사범 검거 당시 수사 내용 확인	채현일

## ○출석 위원(17인)

김상욱 김성희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 청가 위원(3인)

모경종 용혜인 이달희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